

어린이 책꽂이

▲ 모네와 함께 한 하루=저자인 이봉 브로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미술관에 전시된 '인상파의 아버지' 모네의 작품 '선상 아틀리에'에서 영감을 받아 신비하고 긴박감 넘치는 동화를 꾸몄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녀 에밀리가 모네와 만나게 되면서 겪게되는 신비한 이야기다.

〈문학동네·8천원〉

▲ 탈무드에서 CEO 꺼내 읽기=국내외 성공한 CEO들의 일화를 탈무드가 주는 교훈에 덧입혀 쓴 책. 세계 최고의 상인인 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용기, 믿음, 배려 등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삶의 교훈을 일깨워준다. 〈거인·1만원〉

▲ 최승희=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마련한 무용가 최승희의 일대기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명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숨은 편견과 오해를 이겨낸 최승희의 삶과 무용에 대한 열정이 감동을 준다. 〈랜덤하우스·8천원〉

▲ 동명왕편=이규보의 원작 '동명왕편'의 형식을 그대로 살려 어린이들이 최대한으로 원작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해모수, 금오, 주몽, 송양 등 북방 부족들간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일화들이 흥미를 준다. 〈웅진주니어·9천원〉

▲ 나무 하나에=생명을 품고 생명을 기르는 나무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책장을 열면 마치 숲속을 거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진다. 〈사계절·1만5천원〉

"초자연·신비주의적인 것에 회의 품어라"

회의주의자 사전 로버트 토드 캐를 지음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만을 믿는 것 같지만 겸증 과정이 생략된 속설이나 초자연적인 고신학적인 내용을 쉽게 믿기도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는 노아가 인간세상을 벌하려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만든 거대한 배다. 노아는 하느님의 계시대로 땅의 모든 생물이 다시 번식할 수 있도록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암수 1쌍씩 배에 실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믿어 의심치 않는 이같은 내용에 회의주의자인 로버트 토드 캐를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생물'을 현대적 의미로 헤아릴 경우 5만종의 동물과 100만종의 곤충이다. 그는 "노아가 어떻

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끌어모았으며, 엄청난 화물을 싣는 배를 건조하는 게 가능했을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한 발 더 나아가 21세기에도 터무니 없어 보이는

외계 생물체·미신 등 400여개 논제

과학·상식의 논리 통해 통렬한 비판



많은 사람들이 UFO와 외계인, 초자연적인 현상과 사이비 과학 등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은 검증을 거쳐야 하는 사실들이다. 사진은 영화 'ET'의 한장면.

예술이란 조각·문학·음악 등 종체적 개념

예술의 탄생 래리 쉬너 지음



18세기에 탄생한 가장 아름다운 밤명품은 무엇일까?

시각예술의 권위자인 래리 쉬너(미 일리노이대학 교수)의 저서 '예술의 탄생(The Invention of Art)'은 이 같은 궁금증을 충실히 해소해준다. 역사적 맥락에서 예술을 바라본 그는 근대적 예술개념은 단지 200년전 유럽인들이 탄생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시각예술만 국한시키던 기존의 좁은 스펙트럼을 해체하고 미켈란젤로의 조각, 세이스피어의 문학, 모차르트의 음악 등 좀더 넓고 깊은 예술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책은 '1부- 순수예술과 공예이전', '2부- 분리된 예술', '3부- 역류', '4부- 예술의 신격화', '5부- 순수예술과 공예를 넘어서' 등 총 5부로 구성돼있다. 철학, 역사, 시각예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들녘·2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알함브라 궁전에 얹힌 무어인들의 전설

알함브라 워싱턴 어빙



19세기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1783~1859)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조니 데普이 주연했던 영화 '슬리퍼 할로우'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라고 하면 무릎을 칠 사람 있을 것이다.

'알함브라'(전 2권)는 어빙이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 방문했던 느낌과 그곳에서 전해 들은 무슬림의 전설을 소설과 기행문 형식을 빌려 쓴 책이다. 국내 첫 완역본. 알함브라 궁전은 이베리아 반도의 마지막 무슬림 거점이었던 나스리드 왕조의 심장으로 무어인이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다. 저자는 생생한 묘사로 문명의 꽃을 피웠던 당시의 화려함을 살려내는 한편,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내려오는 무어인들의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는다. 1권에서는 궁에 대한 묘사가, 2권에서는 전설이 주로 다뤄진다. 19세기 삽화가의 그림이 컬러판으로 실려 있어 더 생동감을 준다. 〈생각의나루·각 권9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정진국 '잃어버린 앨범'

학교 졸업식 때면 으레 주고받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앨범이라고 부르는 사진첩이다. 세월이 갈수록 모서리가 많이 벗겨지고 거기에 담긴 사진의 빛이 바래가도 우리는 앨범을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한다. 장롱이나 벽장 속에 들어 있는 앨범은 한 개인이나 가족의 '왕조실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어릴 적, 면소재지에서 가게를 하던 우리 집 옆에는 사진관이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자주 사진을 찍을 기회가 많았다.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낡은 앨범 속에서 지나간 우리 가족사를 오롯이 자취로고 있었다.

그 흑백사진들은 틀여다보다가 나는 '사진첩'이라는 제복의 책을 써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흑백사진과 관련이 있는 실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거기에 상상을 보태는 방식의 책이었다. 그때 만나게 된 사진집이 정진국의 '잃어버린 앨범'(가치)이다. 나는 예전 동물을 만난 듯 가슴 한쪽이 아팠다.

'잃어버린 앨범'은 추억의 저장고로서의 사진첩의 가치와 의미를 품掴み 짚어 보면서 우리를 잃어버린 시간의 뒤안길로 안내하는 독특한 책이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간남도너의 인물사진을 통해 지은이는 그때그때마다 변모하는 풍속, 문화, 사회의 이면을 읽어낸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 속에는 193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사진, 추억의 풍속도

시간이 세로축을 그리고 있고, 첫 돌, 졸업, 결혼, 퇴학, 친목회나 송별회 기념사진이 가로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사진들이 보여주는 친근한 이미지는 때로 빙긋이 웃음을 짓게 하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사진이 주는 이미지를 포착해 거기에 적절한 해석을 덧붙이는 지은이의 막힘없는 문장도 독자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앨범 속에 들어 있는 한 장의 흑백사진은 "우리가 작가였고 배우였고 소장자였고 또 관객"이다. 이 사진들은 세련되지 못한 경직성,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고 어색한 포즈, 상투적인 문구의 삽입 등 통속적인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통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감동을 만들어 내는 게 옛날 앨범 속 사진들이다. 그리하여 지은이는 가장 세속적인 것 속에 예술성이 내장되어 있다는 재미있는 통찰을 이끌어낸다.

또한 '잃어버린 앨범'은 우리들의 흑백사진을 활용한 무명의 사진사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상업적인 사진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그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과 상관없이 묵묵히 일한다. 오로지 정성을 다해 연출하고, 활영하고, 현상하고, 인화할 뿐이다. 그가 훌륭한 풍속을 기록한 예술가일 수 있다는 말은 역설이지만 동의할 수 있는 진실에 같다.

디지털 사진은 이제 낡은 사진첩에 담기지 않고 과일로 저장이 된다. 빛이 바래거나 찢어질 염려도 없고 귀퉁이에 파리똥이 뉘어앉을 텐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낡을 줄 모르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대체로 무섭다. 흑백사진 속에 담긴 시간의 주름, 세월의 냄새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안도현
(시인)

모디쉬 갤러리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



KA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 10분 1시간 사용, 타사제품: 1시간 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주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시/군 대리점 모집중